이기는 삶

죽지 말고 살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 정치인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연예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라고 말이다. 세월이 지나면 아픈 상처도 낫고 부끄러운 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인간의 뇌는 좋지 않은 기억부터 지운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부끄럽고 못난 점을 가지고 산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까짓 수치심으로 목숨까지 끊을 일은 정말 아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놓고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가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목숨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두고 진실을 밝힌답시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도 공소권이 없어 수사는 종료된다. 그런데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법인데 죽은 사람을 두고 두 번 죽인다느니, 피해자를 두 번 피해자를 만든다느니 하면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그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비열한 작태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名譽)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不便)하지만 살 수는 있다. 명예를 잃으면 당당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 수는 있다. 물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고 하였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세상

에 이바지하면 된다. 그러니 죽지 말고 살아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남이야 뭐라든 내 목숨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이미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 가족과 동료 그리고 사회와 굳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며 자신은 떳떳한 척하지 마라.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거울삼아 나의 입과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제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다가는 돌아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 그러므로 되도록 입은 닫고 어지간한 허물은 모르는 척 넘어가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상처를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라.*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해탈을 석가가, 중생을 예수가 몰랐다!!!

해탈이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몰랐고, 예수도 중생을 몰랐었다. 그 해탈의 방법, 중생의 방법을 아는 자가 없다. 해탈의 방법이란,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인고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조종하는 생각을 완전히 스톱(정지)시키고, 나라고 하는 것이 주장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만든 다음,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에 이것이 비로소 해탈의 경지요, 중생인 것이다. 해탈 중생의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가 나온 것이다. 이른바 이긴자인 것이다. 이긴자와 함께 있을 때, 이긴자의 눈과 마주칠 때, 어떤 마귀도 아무리 강한 것도 박살되는 것이다. 고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요, 금 자리인 것이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점점 커지면서 어떤 마귀도 척 바라보면 눈 녹듯이 녹는 것이다. 앞장선 여러분, 부름 받아 나선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건강의 전성기를 연장하는 비결은 마음과 몸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다. 근육은 여러 기능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몸에 에너지를 걷고 달리고 들어 올리는 힘으로 바꿔준다. 주로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근육이 하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뼈대에 있어 자세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동작①: 나무자세 (몸의 균형 잡아줘 집중력 향상) 두 발을 모아 선채로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댄다. 천천히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호흡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반달자세 (허리 군살 제거에 좋아) ①번 자세에서 숨을 내쉬면서 두 손을 위로 하여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전사자세 (엉덩이까지 예뻐지는 다리 라인) 양 발을 모아 선채로 시작한다. 숨을 마시면서 왼쪽다리를 뒤로 뺀 뒤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준다. 10초 유지 좌우3세트.

동작④: 전사자세2 (복근, 전신근육 키워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손을 바닥에 대고 오른쪽 다리를 쭉 뻗은 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격암유록 新해설 제85회

십승지인(十勝之人)의 삼풍해인(三豊海印)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歌辭總論(가사총론)

邪說熾盛東西之學 사설치성동서지학
正道浸微行亦難 정도침미행역난을
槿化朝鮮名勝地 근화조선명승지에
天神加護異跡 천신가호이적
牛聲在野唵嘛聲中 우성재야암마성중
非雲眞雨喜消息 비운진우희소식에
八人登天昇降 팔인등천승강하야
賤反貴人新性 천반귀인신성으로
有雲眞露首垂立 유운진로수수립에
心靈變化 심령변화되단말가
牛性在野十勝處 우성재야십승처엔
牛鳴聲 우명성이 浪藉 낭자하고
十口之家五口一心 십구지가오구일심
陰陽田位一家和 음양전위일가화라

동서양의 학문과 종교에는 삿된 학설이 불길같이 일어나니 정도(正道)는 점점 쇠미해져서 행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무궁화의 나라 조선(한국)은 세계의 명승지로서 하나님의 가호(加護)와 이적(異蹟)이 나타나나니 우성(牛性=정도령)의 들판에는 영적 엄마(영모靈母)를 부르는 소리(소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에 구름 같으나 구름이 아닌 진짜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느니라.

불(火=八人팔인)같은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 오르내리면 천(賤)한 사람이 귀(貴)한 사람의 풍모와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나니 구름 아닌 구름에서 내리는 진짜 감로 해인이 머리에 드리우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우성(牛性=정도령)의 들판인 십승처(十勝處)에는 소 울음소리가 낭자(浪藉)하고 십승을 믿고 따르는 집안(十口之家)은 십승 진리(五口오구=田전)를 일심으로 배우고 실천하나니 음양전(陰陽田=5도 72궁, 여인 한분과 6도 81궁 정도령이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면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느니라.

河圖天弓甘露雨 하도천궁감로우로
雨下三貫三豊理 우하삼관삼풍리요
洛書地乙報答理 낙서지을보답리로
牛吟滿地牛聲出 우음만지우성출을
生我弓弓無處外 생아궁궁무처외니
雨下三迎者生 우하삼영자생일세
弓弓猫閣藏穀之處 궁궁묘각장곡지처
牛聲出現見不牛 우성출현견불우라

하도(河圖)는 천궁(天弓) 즉 하늘의 하나님이 감로우(甘露雨)를 내리는데 그것은 화우로(火雨露)의 삼인(三印)을 하나로 관통한 삼풍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낙서(洛書)는 지을(地乙) 즉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천궁)에게 보답하는 이치를 그려놓은 것이니 소 울음소리 즉 엄마의 생명 말씀이 지상에 가득 차게 울려 퍼지는 곳이 있나니 말세에 나를 살리는 것은 궁궁십승(弓弓十勝) 이외에는 없느니라. 십승지인(十勝之人)이 내려주는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豊海印)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궁궁의 십승(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은 삼풍의 영원한 생명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소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소는 보이지 않느니라.

六坎水之一坎水 육감수지일감수
河洛易數 하락역수마치연네
利在石井靈泉之水 이재석정영천지수
寺畓七斗作農 사답칠두작농으로
天上北斗文武之星 천상북두문무지성
曲土辰寸水源田 곡토진촌수원전에
一六中出生命水 일육중출생명수로
日就月將自羅 일취월장자라오니
一日三食飢餓時 일일삼식기아시에
三旬九食不飢穀 삼순구식불기곡을
水火昇降變化數 수화승강변화수로
以小成大海印化 이소성대해인화라

육감수(六坎水)와 일감수(一坎水) 즉 감로 해인의 생명수가 내림으로 하도낙서의 역리(易理) 운수를 마쳤느니라. 농사에 이로운 석정(石井)의 신령한 샘물로 칠두락(七斗落)의 논을 농사짓는 것과 같이 천상의 북두칠성인 문무성(文武星)이 하늘 농사를 짓는 밭은 수원(水源)이 일륙수(一六水)의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로 하늘의 곡식이 나날이 다달이 자라고 발전하니 인간 세상의 농사로 짓는 곡식은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배고프나 하늘 곡식(삼풍지곡)은 한 달에 아홉 끼만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수승화강(水昇火降)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작은 것으로써 크게 변화하게 하는 해인의 무궁조화(無窮造化) 때문이니라.

盤石湧出生命水 반석용출생명수는
萬國心靈 만국심령 다通통하니
不老不死陰陽道理 불로불사음양도리
雙弓雙乙造化 쌍궁쌍을조화로다
四八四乙雙弓之中 사팔사을쌍궁지중
白十勝之出現 백십승지출현하고
落盤四乳黃入腹而 락반사유황입복이
雙乙之中黑十勝 쌍을지중흑십승을
天理弓弓地理十處 천리궁궁지리십처
皆曰十勝傳 개왈십승전햇으니
穹穹天地陰陽之理 궁을천지음양지리
書數通達乾牛道 서수통달건우도라
紫霞島中穹穹村 자하도중궁을촌을
有無識間유무식간 말은하나
曲口羊角 곡구양각하고보니
山上之鳥 산상지조아니로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만국의 심령에 다 통하니 불로불사의 음양의 조화 음양합덕(田田전전)의 도와 이치는 궁궁을을(弓弓乙乙)의 조화로다. 전(田=四八四乙)자와 쌍궁(雙弓) 즉 궁궁(弓弓)의 가운데에서 백십승이 출현하고 낙반사유(落盤四乳)와 황(黃)자의 뱃속(田전)에서도 십승이 나오고 쌍을(雙乙) 즉 을을(乙乙)의 가운데서는 흑십승(黑十勝)이 나오느니라.

하늘의 이치인 궁궁과 지리(地理)상의 십처(十處)를 다 십승이라고 전했지만 궁을 천지 음양의 이치를 담은 하도낙서와 역의 운행 도수에 통달한 것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사영생의 도이니라. 자하도 중의 궁을촌(穹穹村)을 세상에서 유무식(有無識)을 불문하고 말들을 하지만 비뚤어진 입으로 양의 뿔로 나팔 부는 격이라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나를 이기는 길

이긴자는 마귀에게 결코 다시 안 져

선생님: 지금까지의 종교와 학문은 사망의 종교요 사망의 학문이었다. 마구니를 이긴 부처님이 출현하여 처음으로 영생의 종교와 학문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반발하여 영생교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부처님이 마구니를 이긴고로 결코 마구니가 부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마구니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총 공세를 가해와도 결코 질 수가 없다.

선생님은 헌금사기죄로 7년을 복역하였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마구니에게 진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7년을 복역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종교단체에서 헌금을 받지 않는 데가 어디 있느냐? 다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꾸며서 죄를 만든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기독교 목사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탄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오늘날 법을 집행하는 데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면 재심청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 재심청구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똑같은 놈들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이다. 영생을 주장하면서 헌금을 받았다는 게 사기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극락에 간다고 주장하면서 헌금을 받는 것은 왜 사기가 되지 않느냐? 종교의 교리는 초법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중에 무죄가 될 것이다.

살인교사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명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않으려고 껑충 뛰어넘어갔다. 그것은 이 사람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려고 마구니들이 모함한 것이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는가? 만일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면 이 사람을 누가 따르겠는가? 아무도 안 따를 것이다.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는가?*

다음 호에 계속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